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교 교수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필자는 몇 년 전 독일 통일 전문가들과 동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독일은 통일에 앞서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나는 동서독 기본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이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정책적 전환의 산물이다.

서독은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합수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화와 교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동서독 기본조약 8조에 상주대표부 설치를 명명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1974년 동서독의 수도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될 수 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동서독 상주대표부

었다. 독일 전문가들은 상주대표부가 통일 될 때까지 동서독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물론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동서독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시시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상징적 의미이다. 문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언급했듯이 남북 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매우 중대한 진전이다. 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 인적 물적 교류를 본격화했던 독일의 경우 각기 수도에 설치된 상주대표부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외교 관계에 있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존재하듯이 정식 외교관계 수립 이전의 상주대표부나 연락사무소는 교류 확대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통일 전 동서독의 경우 한해 300만~4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오고 갔고 교류에 따른 절차들을 상주대표부와 해결해 나갔음을 상기해 보자. 향후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이 의논하고 기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 이는 연락사무소장의 급이나 남북 제재 문제 등 정치적 문제는 차차하

고 그 자체로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실질적 측면이다. 남과 북은 공동으로 마련된 연락사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동서독 상주대표부의 경우는 대화 통로, 주민 편의 제공 등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각기 상대방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동서독 관계 확대 발전에 따른 새로운 업무 또한 창출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 석방, 대동독 지원 등 동서독 인도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상주대표부는 협의의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물론 동서독의 경우도 그 이상의 레벨이나 중대한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및 각기 협상 파트너가 직접 협상에 임하였다. 따라서 우리 연락사무소의 경우도 실제 남북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과 협의의 창구로서 협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의 확대 발전에 대비하여 상주대표부와 같은 역할의 확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 동베를린 상주 대표부 대표였던 한 인사는 동서독 기본조약과 상주대표부 운영에 대해 의미심장한 평가를 한 바 있다. 그는 동서독 기본조약과 상주대표부는 독일이 통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국내외 정치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독일 문제를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의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도 한반도 상황 관리와 남북 관계의 제도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다.

우리는 독일이 해온 두 가지의 제도적 장치처럼, 지난 판문점 선언과 앞으로 있을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남북 관계의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선순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선 독일 인사의 언급처럼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남북 관계의 상황은 제도화된 장치를 통해 관리되고 발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금 새로 태어났고 첫발을 댄다. 우리 스스로가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임을 인식하자.

종교칼럼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자 한다.

첫째는 효심이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보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녀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나를 낳아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주신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이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의무라 하지 않고 사모님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한다.

예부터 충신은 효자문에서 구한다라는 말이 전해져 온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말이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철이 들기 전에는 육구를 채우기 위해 조르고 보채면 그 육구를 채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부모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동안 나의 육구가 채워진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철 든 사람의 효의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이것이 곧 충이다. 이는 효의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서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뒷자라다 하여 교만하지 않고 애랫자라다 하여 어지럽히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언제나 불효자이

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대상(절대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듯 부모님에게 항상 공경의 마음으로 성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효도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식이 훈습으로 효를 익힌다. 부모님과 유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야말로 이 세상 어느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된다.

둘째는 좋은 가풍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20여 년 전 만해도 집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훈을 적은 액자를 걸어놓았다. 가훈의 실천으로 좋은 가풍을 이루자는 의미다. 좋은 가풍은 가족 구성원들의 좋은 습관을 익혀 나갈 때 이루어진다.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 분란을 일으킨다. 과거에는 조금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순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중자중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물질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

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가치관이고, 가풍이 되는 것이다.

필자 역시 돌이켜보면 새벽녘에 정수를 따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지 않았나 싶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가정의 어떤 가풍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령이 된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근본과 뿌리를 찾아야 하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기만과 사피포라. 가정 안에서 웃음꽃이 피는 것보다 더한 큰 기쁨은 없다. 선조들의 '교과서'인 명심보감에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이제 추석이 한 달여 남짓 남았다. 이번 추석에는 부모를 찾아뵙고 그동안 못다한 효를 실천했으면 한다. 그것이 좋은 가풍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것이다.

기고



유기용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소장

실효성 있는 아동 학대 근절 대책 절실하다

아동 학대 의심 신고는 2015년 1만 9214건, 2016년 2만 9674건, 2017년 3만 41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052건에서 2016년 1633건으로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190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아동 학대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사나 훈육으로 치부했던 것에서 벗어나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신고자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주 반가운 요즘이다.

그렇다면 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구해내고 마지막 한 아이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을까? 아쉽게도 대답은 '아직'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예산의 출처 변경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복권 기금 및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방 사업 관련 예산을 중앙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일반 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고 적정한 예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촘촘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전국 62곳의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228개 지자체의 학대 피해 아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가 일하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소속된 전남도는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지방비(도비)를 자체 편성하여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를 설치해 전남 서부권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러 지방 정부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폭폭 찌는 무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여름에 정부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시원하게 쏟아내 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여름을 기대해 본다.

社說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효과 거두려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7조 원 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배량 끝에 선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 할 만하다. 지원 대책을 들여다보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확대, 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 완화, 경영여건 개선, 안정적인 입차 환경 조성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은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대책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재정 지원으로 털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원책 가운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도 눈에 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3만 원을 주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린 것이나, 카드 수수료를 3%에서 1.8%까지 낮춘 것은 당장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결국 재정 투입을 통한 단기적 처방도 좋지만 불공정한 자영업 생태계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예로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일반 가게)에 비해 매출은 높지만 수익은 낮다는 현실을 반영해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며 직장인의 은퇴를 늦춰 자영업 진입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영세한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들이 그렇다.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은 연평균 영업 이익이 2800만 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고 폐업률은 15.7%로 가장 높아 쉬지 않고 일해도 1년에 손에 쥐는 돈이 3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자영업자가 직장인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출구 전략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 재판 무산의 어떤 빌미도 주지 않아야

전두환 씨가 오는 27일 광주 재판정에 서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밝히면서,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광주 재판'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내하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5·18 피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이 흑시라도 격앙돼 시위나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전두환의 광주 재판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마나 한이 깊었으면 80-90년대 5·18 시위 때에는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는 플래카드와 구호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상황이기에 이번이 그가 광주에 올 경우 격앙된 일부 시민들로 인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두환은 자신이 쓴 회고록을 통해 5·18당시 헬기 사격 증언을 한 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이번에 재판을 받지만, 5·18피해 당사자는 물론 광주 시민들은 여전히 그가 5·18민중항쟁 유혈 진압의 당사자로 처벌받기를 바라고 있다. 재판을 통한 5·18진상 규명과 처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5·18유족회를 비롯한 5월 단체 등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더니 다행이다. 시민들 역시 전두환 측에 재판 거부나 재판 관할권 이전 등을 주장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피켓 시위 등의 단체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더욱이 지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이 5월 진상규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려 38년을 참고 기다려온 만큼 이번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 시민사회의 집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부모나 자식을 둔 시민들의 아픔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다. 얼

無等鼓

1986년 11월 4일 오후 7시. 스토클랜드의 한 휴게소에서 어떤 역사적 만남이 있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마틴 에드워즈 회장과 45세의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만나 이적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퍼거슨은 이적료와 주택 구입비 등을 요구했지만 들어온 것은 침묵. 자금난에 허덕이던 구단은 대신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네가 원한다면 이 클럽을 가져도 되네." 맨유는 당시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 19위로 강등권을 땀도는 팀이었다. 퍼거슨은 오랫동안 꿈

퍼거슨은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 영입에도 뛰어난 안목을 가졌는데 그가 주목한 인물 중에는 포르투갈의 스포프링 리스본을 이끌고 있는 39세의 젊은 감독 파울로 벤투도 있었다. 벤투는 퍼거슨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맡아 2012 유로에서 팀을 4강으로 이끌었다.

벤투 감독

타프를 대동했다. 최가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가 없이 사인을 했다. '0 파운드 계약'이 성사되자 회장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 "퍼거슨 씨, 오늘 계약으로 우리가 우승 트로피를 몇 개 만 건가?" 퍼거슨은 27년 동안 38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맨유를 세계 최고의 클럽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는 젊은 감독의 야망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구단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코치들의 역할이다. 그의 결연 처음부터 함께한 녹스를 비롯해 맥클라인, 케이로스 등 뛰어난 책사들이 있었다. /유재관 편집·부강 부국장 jkyou@

어제 벤투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히딩크가 그의 사단을 이끌고 온 것처럼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코스 수석 코치 등 네 명의 스태프를 대동했다. 최가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가 없이 사인을 했다. '0 파운드 계약'이 성사되자 회장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 "퍼거슨 씨, 오늘 계약으로 우리가 우승 트로피를 몇 개 만 건가?" 퍼거슨은 27년 동안 38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맨유를 세계 최고의 클럽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과정에는 젊은 감독의 야망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구단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코치들의 역할이다. 그의 결연 처음부터 함께한 녹스를 비롯해 맥클라인, 케이로스 등 뛰어난 책사들이 있었다. /유재관 편집·부강 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황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